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32호 현대불교 29  
2011년 4월 20일(음 3월 18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 내 앞에 닥친 거 다 그냥 한마음에다 흡수시켜라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2(남)** : 스님, 감사합니다. 저의 어설픈 질문이 스님의 가르침에 누가 되지 않을까 송구스럽습니다. 2년 전 어느 날 스님께서 저에게 호두 한 알을 건네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쁘고 환희심에 차서 한시도 그 호두를 제 손에서, 그리고 제 주머니 속에서 놓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기를 한 2년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 호두도 제 손때가 묻어서 보기 좋게 윤도 나고 했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문득 진실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그 호두를 깨어서 그 속을 맛있게 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문도 모르게 막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웬걸, 거기에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뭐라 할 수 없는 눈물이 또 솟았습니다. 실컷 울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또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아, 스님은 어디에든 다 계시구나. 또 무엇이든 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풀 한 포기, 바람 한 점에도 평등공법(平等空法)으로 아무런 차별도 없이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나왔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탓하시어 가르침을 주십시오.

**큰스님** : 옛날에 내가, 공부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길을 걸어들 때 애깁니다. 나의 모습으로 보였다고 했죠? 당신의 마음이 말입니다. 때로는 나로 보였다면 돌이 아닌 까닭에 나의 모습으로 보였다고 뿐이지 당신이요. 당신이 그렇게 참나에 하나로 되고, 또 당신이 당신으로 보였다면 나로 보였다고 당신한테도 하나가 돼 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의 배움의 과정이지 내가 보인다고 나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디고 다 있구나' 하는 그 생각도 옮지만 배우는 과정에서는 때로는 참나에 자신과 아버지가 부(父)로 하나가 되고 때로는 생각을 했다 하면 자(子)가 돼 버려, 그냥 부와 자가 그냥 자가 돼 버려. 하나가 돼 버려. 그러니까 그 도리만 알면 자유자재권을 얻을 수 있어. 모든 게, 어느 거 하나 내 거 아님이 없다 하는 도리도 그 까닭이지.

그러니까 하여튼 깨 먹은 건 잘 깨 먹었어. 언제고 모습이라는 건 없어지게 마련이거든. 깨지게 마련이야. 그리고 먹어치우게 마련이니가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닥치는 대로 먹어치워라.' 그건 무슨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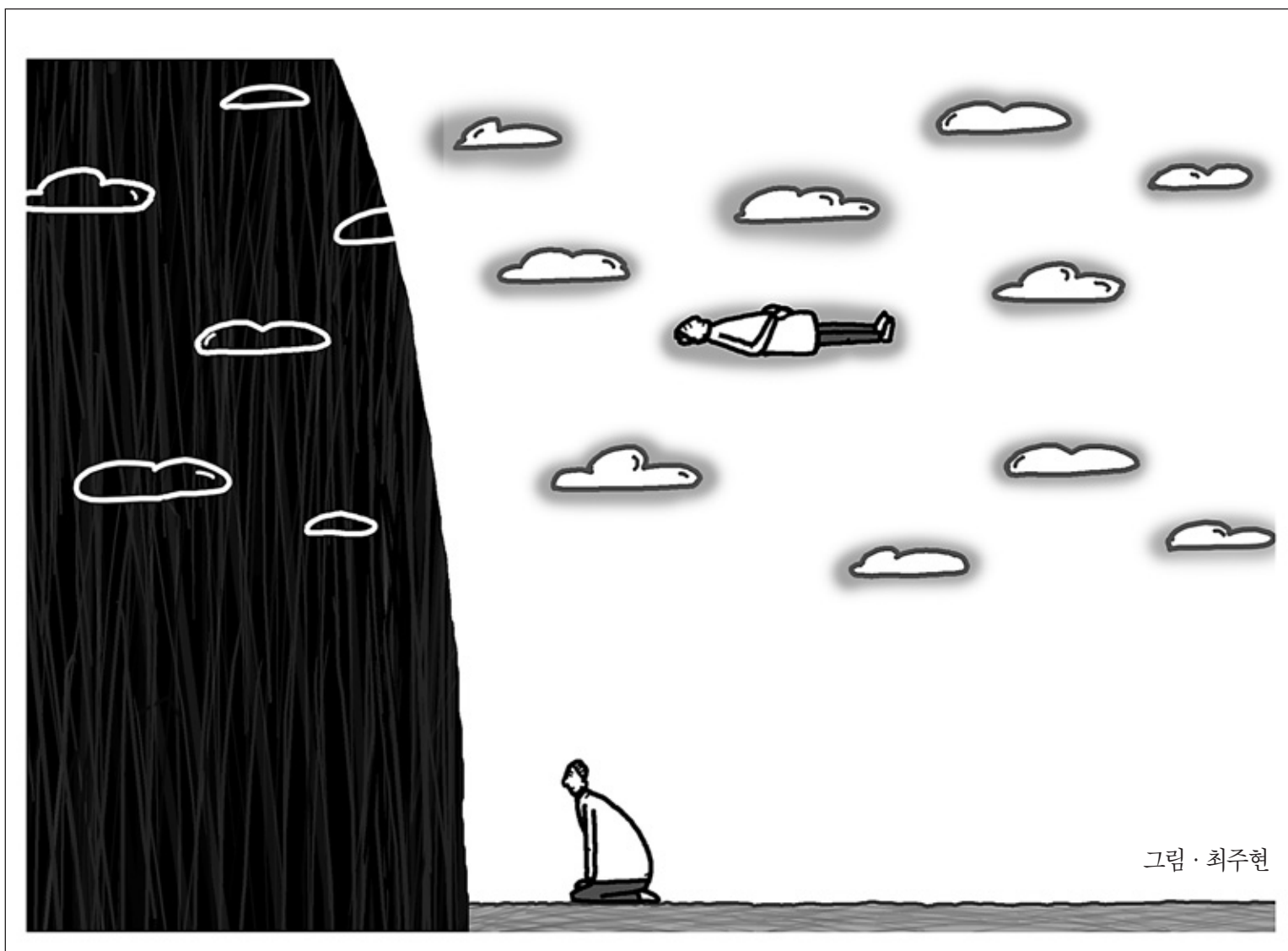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지? 부처님이 대신 못 깨쳐 주니까 부처님을 한마음에다 흡수시켜라 이 소리거든. 먹어치워라 이라는 게 막말로 그냥 잡아먹으라는 게 아니라, 하하하... (가슴을 짚으시며) '흡수시켜라' 이거야. 돌 아니게 흡수시켜라. 모든 거, 악한 거든지 선한 거든지 개구리든 뱀이든 하여간에 내 앞에 닥친 거면 다 그냥 흡수시켜라 이거야. 그래서 한번 씩 그 웃으며 꽃 한 송이든 거와 같이 이심전심으로 그냥 전부 통해라 이거야. 어북하면 부처님께서 사생자부가 되라고 빼 한 무더기 놓고 가르쳐줬잖나!

**질문자3(남)** : 가족을 데리고 이웃과 더불어 세속에서 생활을 하다가 보니 정말 온산철벽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요새 그걸 풀어 보려고 송곳과

드릴, 다 사용해 보았습니다만 여의치 않아 스님이 가르쳐 주신 다이아몬드 장진을 했습니다. 기필코 뚫을 것입니다. 뛰어넘을 것입니다.

**큰스님** : 그렇게 해 보세요. 하하하... 사실은 마음은 체가 없어서 철퇴도 없고, 또 쪼쟁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가 있고, 강도 건널 수가 있고, 온산철벽도 뚫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한생각을 하면 저 미국에도 통하고, 저 은하수에도 통하고, 저 우주에도 통하는 데요. 뭐, 그냥 빛보다 더 빠르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갑니까?

**질문자3(남)** :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은 알아 들을 것 같습니다.

**큰스님** : 죽고 사는 거를 다 그냥 거기가 탁 놔 버리고요. 겁내지 마요. 자식이 어떻게 될까, 부

인이 어떻게 될까, 또 어떻게 바가지를 긁을까? 뭐, 당신 속을 탁 보니까 그래요. '그런 것이 악마 들처럼 들이닥치는 데는 내가 옹빠는 재주 있나?' 이러지만 그런 거를 다 그냥 놓고 그냥 다 놓고... 그거를 들고선 붙잡고 쥘때면, 다 놓고 그냥 뻗 뻗하게 있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외려 다 놓게 되면 심부름꾼이 생겨요.

**질문자3(남)** :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서산 대사께서는 원력이 대단하시다는 것을 어려서 부터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인마살상용 칼, 활, 창, 철퇴 같은 것을 그렇게 보유하고 계셨는지요? 그것을 원력으로써 미연에 방지도 할 수 있고 또 입박에서도 관법으로써 능히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걸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계셨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우리 범행제님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을 바랍니다.

**큰스님** : 아주 할 말 다 하시네. 하하하. 달마 대사께서는 활구공법이기 때문입니다. 활구공법! 그 뜻, 아시겠습니까?

**질문자3(남)** : 이해가 잘 안됩니다.

**큰스님** : 예를 들어서, 살립하시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천차만별로 돌아가는데 그 천차만별의 기능이 다 한군데 들어 있는 겁니다. 아버지 노릇 하시죠? 또 남편 노릇 하시죠? 아, 기능이 많이 들어 있네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두 다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불(佛)·법(法)·승(僧) 삼보(三寶)를 다 가지고 있다. 삼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세계를 다 (주먹을 쥐어 보이시며) 일세계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삼계를 일심으로 가지고 있는데 너무 허공같이 커서 그 일심마저도 공했다. 이 공한 마음은 허공과 같다. 그러니 달마 대사께서도 자기 거 아님이 없고, 자기 아님이 없으니, 때로는 생각을 안 하면 부처로 하고 생각을 했다 하면 법신(法身)으로 하고, 또 움직여줬다 하시면 보현신으로 하신다. 또 한생각으로 보살의 이름으로 관찰해서 '너, 그 모든 거를, 법으로 다스릴 땐 다스리고, 건질 땐 건지고, 또 자비를 베풀 땐 베풀고 이렇게 해라.' 하고 마음을 내시면 그대로 보살들이 다, 보살의 이름으로써 응신(應身)이 돼서 응해 주셨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라고 했다는 거죠.

달마 대사도 부처님께서도 일불(一佛)이지, 달마 대사가 따로 있고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 시대에 모습을 달리 해서 나왔을 뿐이지, 이 허공 안에 깨진 사람이 다 있다 하더라도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이시며) 일불입니다. 일불! 만물이 일불이요 일불이 만물이니, 만물을 제각기 보지 말라. 제각기 보지 않되 제각기 보라. 때에 따라서 상대로서 할 때는 둘만 돌 아나게 보는 거지만 넓게 본다면 전체가 하나로 돌아가죠. 그러니 모든 이치를 전자의 선조들께서는 "부처님 법이 어떤 것입니까?" 하면 "자 한 잔 마시고 가거라." 하셨죠. 또 어디서 왔느냐고 묻고 어디서 왔습니까? 하면 "아, 차 한 잔 먹고 가거라." 부처님 법을 오래

30면으로 계속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해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 안내



총무원장  
무명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회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참중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치나 갈 사할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 입종 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 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침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말소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충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사: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1-545-5060

## 회원을 모십니다

아래의 취지와 목적으로 함께하실  
종단 중정, 총무원장 스님을 모십니다  
<군소종단 중정, 총무원장 스님>

- ① 친목을 위한 모임
- ② 종단의 발전과 승가 양성의 연구
- ③ 학술연구 토론
- ④ 이웃나라 불교문화 연구
- ⑤ 우리불교 문제 연구 토론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138-12  
전화 : 041)621-5537

대불교 종단 발전 협의회(가칭)

불기 2555년(2011년) 신묘년 부처님 오신날

## 봉축 특집광고 접수 안내

귀의삼보 하옵습니다. 불법홍포를 위해 정진하시는 대덕 큰스님 이하 사부대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현대불교신문을 관심 있게 지켜보아 주시고, 물심양면 도움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불기 2555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온 누리에 부처님의 법 향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봉축 특집신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함께하는 축하광고 지면을 마련하였사오니 무무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더욱 밝아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진의 자세로 더욱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아 래

- 제 목 : 2011년 봉축 축하 광고
- 내 용 : 축하말씀, 단체 및 사찰명, 임원진, 사진, 주소, 연락처 등
- 크 기 : 크기에 따라 선택 가능
- 마감일 : 2011년 4월 29일(금요일)
- 접수처 :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및 지사지국

본 사	02)732-1522	광고 영업부
부산지사	051)632-0064	이재진 지사장
대구지사	053)768-8008	손문철 지사장
광주전남	062)384-3009	양행선 지사장
전 북	063)910-8977	조동제 지사장
영주지국	054)634-3429	박영애 지사장
경남남부	055)746-9778	청운스님

\* 전화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고 크기별 샘플 보내드립니다.

현 대 불 교 신 문 사



# 죽고 사는 것도 겁내지 말고 탁 뇌버리세요

☞ 29면에서 계속

배웠다는 사람한테도 “차 한 잔 먹고 가라.” 했는데, 부처님을 안다거나 모른다 하는 사람들에게 다 그냥 ‘차 한 잔 먹고 가라.’고 한 것은 이유가 있다는 얘지요.

**질문자4(남) :** 스님, 감사합니다. 광주지원에서 왔습니다. 스님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주셔서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생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름에 국가정책상 방역사업을 하게 되면 모든 곤충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살생이 되는데 어떻게...?

**큰스님 :** 두 가지 여건이 있어요. 자기 주인공 신장한테다 놓지 않고 그냥 살생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냥 살생이 되고, 여기다가 놓고 살생을 하면 살생이 아니라 그거는 탄생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생을 시킬 때도 그 모습으로 재생을 시키는 게 아니라 벌레 곤충만 마리를 한테로 모아서 탄생을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생을 시키는 거죠. 차원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재생을 시키니까 옛날의 그 선사들, 선지식들께서 소 한 마리를 잡아도 그런 살생이 아니라 무명을 벗겨준 게 되기 때문에, 재생을 시켰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자비다.

**질문자4(남) :** 잘 알았는데요. 불자들은 그렇게 할지언정 불자 아닌 분들이 행장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큰스님 :** 그러면 한생각 내 주는 거죠. 뭐, 모른다 알든 모두들 미생물에서부터 어떠한 곤충이든지 다 그냥 모아서 재생이 될 거라면 재생이 되게 하는데, 하나씩 개별적으로 안 되죠. 그것은 인간의 그 모두를 겸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질문자4(남) :** 그리고 또 크게 나가자면 국가 간에 전쟁이 벌어질 경우도 생기는데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살생을 하는 경우가 어차피 생깁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큰스님 :** 그것도 걱정 말고 하세요. 허허허... 때로는 이런 게 있죠. 자연적으로 집안이 좁아지면 집안을 늘릴 수도 있지만, 식구가 많아져서 집안이 좁아지면 뽕뽕이 헤어져서 나가기도 하고, 또 체로 걸러서 없애기도 합니다. 어떠한 씨를 심었는데 싹이 배게 나와 있으면 열매가 굵게 열리지 않으니가 요걸 뽑아 버리죠. 한테 불은 거는. 그렇게 뽑아 버리는 것처럼 우주 제물세계에서 볼 때에 이게 전부 숙지 않으면 안 되리만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볼 때 굵어 죽는 나

라도 있고, 때로는 물로 죽고 불로 죽고, 그냥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질문자4(남) :** 제 육신 같으면 나서 죽을 바에야 아예 안 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큰스님 :** 때로는 그렇게도 생각되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걱정을 한다면 그렇게 그냥, 얼른 쉽게 말해서 총으로 팽 맞아서 죽는다면 아주 편리한 진화가 아닌가. 그냥 지근지근 아파서 죽는 거보다도 파퓰파퓰 죽으면 오히려 고통 없어, 재생이 돼서 나오더라도 아주 편리하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죽는 것도 겁내지 말아야 되죠. 그 사람한테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거든요. 죽어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예수가 부활하듯 그냥 또 부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조금 더 살고 조금 덜 살고 이거뿐이지, 누구냐 한 번은 다 죽어요. 죽는다는 거는 다 알고들 계시죠? 그런데요, 뭐! 그 사람네 들만 죽고 나는 안 죽는다, 이런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죽어요. 그런데 죽는 것은 살 양으로 죽는다, 이런 게 있죠. 살기 위해서 죽는다. 그러니까 죽고 죽이는 거를 겁내지 마세요. 그것도 자연의 이치니까요.

**질문자5(남) :** 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중에 가진 몇 가지 의문점과 함께,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받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스키를 타러 무주 덕유산산 갔었습니다. 가서 스키를 차에 실어 놓고 주차장에 차를 넣고 잠깐 스키장에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제 차는 물리적으로 헤드라이트가 켜지지 않게 돼 있는데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아, 이거 산에 올라가지 말라가 보다.’ 이렇게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그래, 그냥 가 보자.’ 하고서 또 끌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스키를 타는데, 제 스키이 두 짝이 있는데 스키이 몸에 잘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아서 ‘참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바

퀴 돌고 와서 자리에 가 보니까 스키 두 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새것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놓고 갔나? 둘레를 아무리 봐도 갖다 놓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잘 모르겠지만 고맙게 받겠다.’ 하고서 스키를 잘 닦았습니다. 타고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차에 불이 켜진 부분이 의문이 났고요. 그다음에 새로 얻은 물건에 대해서 제가 무엇을 배웠어야 되는 것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 나같은 의심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말합니다. 좀 넓게, 좀 좋도록 생각을 하세요. 헤드라이트가 켜졌으면 ‘아, 이걸 밝혀 준다다고 잘 갔다오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것을 ‘가지 말라나 보다.’라고 생각하세요? 왜, 켜졌는데 가지 말라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잘 돌아가는 쪽으로, 좋도록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또, 그 물건이 생긴 것도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땐 이상스러운 일이 하나도 없습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 주인공이 다 그렇게 시켜서 그냥 그렇게 됐구나!’ 하고 생각하세요.

옛날에도 그런 예가 있죠. 어떤 사람이 빨치산으로 갈려 가지고 있는데 도무지 나올 길이 없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예를 들어서 당신 같은 당신의 원자 속에서 입자를 내보내서 그냥 딱 사람을 데려오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을 따주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현실로 그냥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것도 그 중간의 역할을 주인공 자리에서는 다 할 수 있다는 얘지요.

그런데 이름만 부르는 사람 앞에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주인공이라는 그 속에서는, 그 불성 속에서는 천차만별로 화해서 나투어서 신장도 돼 주고, 보디가드도 돼 주고, 해설사도 돼 주고, 관세음보살도 돼 주고, 지장도 돼 주고, 문수도 돼 주고, 보현도 돼 주고, 해신도 돼 주고, 산신도 돼 주고 다 돼 준다. 거를 믿으세요. 믿고 해야 돼요.

**질문자5(남) :** 큰스님께 병고에 대해서 좀 여쭙 보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상당히 좀 심했었는데 ‘모든 것을 다 거기서 하나... 뭐, 끌고 가든지 병원을 데리고 가든지 하여간 알아서 해라.’ 하고서 병원을 안 가고 그냥 코푸시업을 사서 먹고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눈이 갑자기 막 아프기 시작해서 그냥 또 밀고 나가다 보니까 직원들이 ‘병원에 가 보셔야지 안 가 보시면 됩니까?’ 하고 자꾸 얘기를 하기에 ‘아, 그래!’ 하고 병원을 한 번 갔어요. 그랬더니, 눈에 뭐가 박혔다. 그러면서 여러 개를 뽑아내더라고요. 눈에서, 그렇게 두 번을 겪으면서 제 생각이 물론 같이 한지리지만 무의 세계에서만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바깥의 물질적인 것도 같이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큰스님 :** 아휴, 참 내! 생각을 말이에요, 병원에 가든지 약국에 가든지 자기가 있으니까 가는 거죠? 자기가 있으니까 아픈 것도 있는 거지 자기가 없으면 아픈 것도 없죠. 그러니까 병원을 가도 자기 주인공 그 자체, 자기 영혼의 근원이 거길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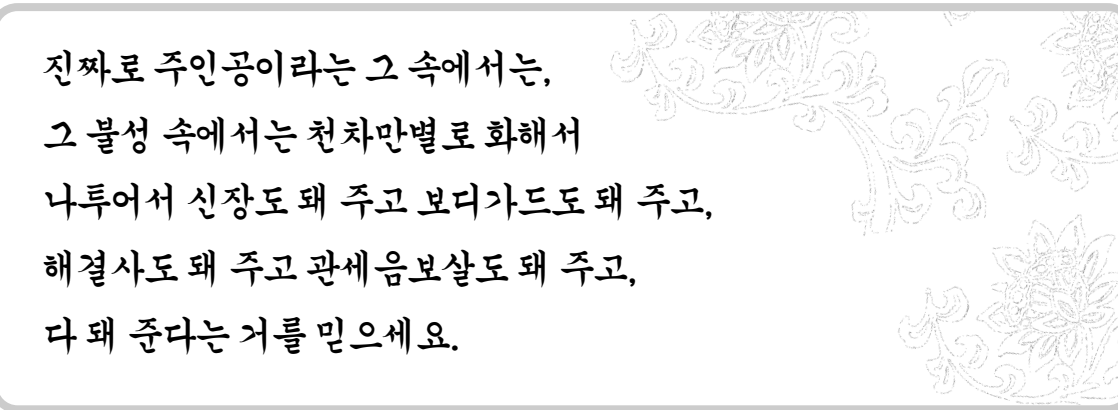
게 하는 거죠. 믿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먼저 가요. 허허허... 그래서 남의 손을 빌려요. 내 손으로 할 거라면 내 손으로 하고 저 손을 빌려야 될 거라면 저 손을 빌리고, 이게 마음대로 자유자재권을 거기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오게 받을 때 ‘술 먹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러죠? 그런 걸 나는 중간에 다 놓고, ‘술을 먹되 남을 괴롭히지 말고 망주로 먹지 마라.’ 그랬죠. 하여튼 뭐든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많이 먹으면 탈이 나고, 그러니까 뭐든지 나한테 맞게 먹으면 탈이 하나도 안 나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도요. 거짓말하지 말란다고 그냥 형제지간이나 또는 친구지간이나, 말을 좋게 해줘야 이쪽하고 의리가 나빠지지 않는데, 거짓말 안 한다고 그냥 끈이끈대로, 이쪽에서 육했다고 그대로 얘기하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되 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융통성이거든요. 융통성.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을 했어도 거짓말이 아니 되니까,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럴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해라.’ 이럴 수도 없고. 이게 영거주춤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거짓말 해도 아니 되고 아니 해도 아니 되는 그 가운데서 내가 알아서 융통성 있고 지혜롭게 해 나가라. 이게 그대로 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와 같이 융통성 있게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아, 내 한마음이 저기까지 미치지구나! 보이지 않는 한마음이 차나에 들고 나면서 남의 손을 빌리게 해 주는구나! 그리고 겉으로는 내 주인공의 손을, 주인공이 이렇게 남의 손을 빌리게 해 줬으니 그 수고한 걸 감사하고, 진짜 감사한 건 여기서 그렇게 만들어 줬으니 감사하고...’ 이런 거죠. 매사를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사회자 :** 오늘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큰스님 :** 다 됐습니까?  
**사회자 :** 예.  
**큰스님 :** 그제 길었던 짧았던 한순간의 일입니다. 한순간의 일이에요. 우리가 한 시간이 됐든 한 시간이 넘었든 연방 과거로 돌아가면서 연방 미래로 오면서 연방 현실로 그냥 그대로, 그냥 초지(初地)에 끝난 거죠. 허허허...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도반으로서 배우게 돼서 감사합니다.

※ 위 법문은 97년 4월 6일 법행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니다. ‘내가 원하니까 내 줄병들이 갖다 놓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허허허... 언젠가 그렇게 내가 얘기했죠. 여기 처음 오던 해에 감정을 해야 할 텐데 그릇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릇이 없으니가 뭐, 배추도 절일 수도 없고 그런데, ‘배추는 절여야 할 텐데 어떡해? 그릇이 있어야 할 텐데...’ 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나가니까 그릇이 와서 차곡차곡 정겨워 있었어요. 누구냐 그 도리를 알 수 있는데도 부처님은 그것을 꼭 금하셨거든요. 아, 그런 걸 하게 하면 은행에 돈이 하나도 남아는 게 없게요? 허허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모습을 자꾸 없애고 보이지 않게 하지 마라. 이거야. 현재에 사람들이 살면서 이러치면 못한다는 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부처님께라도 아예 금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 몸통이를 그냥 그대로 누워서 보여 주셨죠. 그러니까 급할 때 그런 게 생기는 걸

**민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불교용품 불교서적 불교달력

www.buddhashopping.com

**동진기획 · 붓다쇼핑** 연등 말인가

☎ (051) 515-8888 대량구입시 전화주십시오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TEL (051) 515-2988, 555-1087, 508-9377~8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FAX (051) 508-0101  
H.P 011-554-2988, 011-879-0889

◆ 통 령 : 121068-56-042256 [예금주: 강태규]  
◆ 우체국 : 612416-02-031008 [예금주: 강태규]

※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카탈로그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시 주소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등록증, 인쇄사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림칼라등 30cm** @2,700원(100개이상)  
**연화만월등 (원색/분홍/빨강/파랑/초록)** @3,300원(96개이상) / @5,500원(24개이상) / @12,000원(12개이상) / @35,000원(4개이상)

**비단접등 10.5cm 12cm** @2,700원(100개이상) / @3,300원(96개이상) / @5,500원(24개이상) / @12,000원(12개이상) / @35,000원(4개이상)

**청사초롱** @170,000원(100개) / @170,000원(100개) / @200,000원(100개) / @240,000원(100개) / @150,000원(50개) / @250,000원(100개) / @340,000원(100개)

**방수전선간격(50구)** 22cm / 25cm / 30cm / 50cm 1m / 2m ※기타주문생산

**안등속지백색 1등급** 6cm 3,500원 / 8cm 4,000원 / 10.5cm 4,500원 / 12cm 6,000원 ※1등급당 100개를 만들 수 있음

**집게부착PVC등표** @20,000원 (100개) 크기: 8.5x21cm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x 세로 32cm x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x 세로 32cm x 높이(뒷면) 6cm]

**71방석**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역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요연말/ 02)2004-8216  
☎ 053-01-298062 (주)현대불교신문사